

(3월 14일 현재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총련기관은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과 건물안에는 금, 파손이 일어났다. 현재 사무소를 학교나 다른 장소로 옮기며 낮에 밤을 이어 동포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다.

한편 센다이시의 도호꾸조선초중급학교의 교사와 기숙사건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졌으며 후쿠시마조선초중급학교 건물과 기숙사는 수도관이 파열되고 정전상태에 있다

또한 도호꾸지방과 간또지방의 우리 신용조합들에서도 샷타, 승강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영업을 못하고있으며 이 지방의 동포유기업점방들이 파손되어 문을 닫은 상태에 있다.

이런 속에서 히로시마현 거주 2 명의 동포들이 이바라기현 동해촌에서 로동하다가 참사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14 일 오후 3 시 현재 그외 우리 동포들의 인명피해는 포착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이와데현과 후쿠시마현의 해변가인 해일지역에 사는 동포들의 피해는 상상이상으로 크게 확대될것이 예견된다.

(3월 17일 현재 조사에 의하면)

재해발생당일날 이바라기현에 있는 어느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두명의 동포가 사망하였다. 해일이 들이닥친 지역으로서 현재 외부와의 연계가 완전히 끊어진 이와데현과 후쿠시마현의 해안가지역 동포들의 생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피해가 매우 클것이 예견된다고 한다.

동포사회가 당한 물적손실도 크다. 총련 미야기현본부를 비롯하여 이바라기현본부와 이와데현본부의 건물들이 유리창이 깨져나가고 벽들에 금이 가는 등 심히 파손되었다.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있는 도호꾸조선초중급학교의 교사와 기숙사건물은 지반침하로 심히 기울어졌으며 후쿠시마조선초중급학교도 하부시설이 크게 파괴되었다. 또한 도호꾸지방과 간또지방에 있는 총련산하 신용조합들과 동포상기업들은 심한 파손으로 영업을 중지하였으며 수많은 동포가정들이 막대한 가산손실을 당하였다.